

# KCGS Report

제14권 8호 | 통권 제176호  
2024. 8.



한국ESG기준원

## KCGS Report 제14권 8호

발행일: 2024년 8월 30일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4권 8호 | 2024. 8.

## ● ESG 동향

국내외 ESG 정보 검증 현황 및 시사점 2

## ● Global News

1. ESMA,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서 발표 12

2.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ISSB 공시표준에 보다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15

# 국내외 ESG 정보 검증 현황 및 시사점

박은빈\*

- ▶ ESG 정보에 대한 검증은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 ▶ 국내 ESG 정보 검증률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점은 긍정적이나 모든 검증이 제한적 수준의 검증이라는 데 한계가 있음
- ▶ 투자자들은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ESG 정보에 대한 검증 수준을 강화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이미 검증을 의무화한 EU에서는 향후 검증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ESG 정보 공시 제도화 시에도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정보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함께 의무화하고 검증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검토 배경 및 목적

- 해외 여러 국가들이 ESG 정보 공시와 함께 정보 검증<sup>1)</sup>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ESG 정보 공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는 제도화를 위하여 검증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ESG 정보 공시와 검증을 의무화했고, 인도, 영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도 ESG 정보 검증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음<sup>2)</sup>
  - 국내에서는 2026년 이후로 예정된 ESG 정보 공시 제도화를 준비하면서 그간 검증 부분에는 다소간 주목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흐름에 상응하는 정보 공시 제도화를 위해서는 공시와 검증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외 ESG 정보 검증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해외 시장과 구별되는 국내 검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2026년 이후로 예정된 우리나라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선임연구원, eunbin@cgs.or.kr

1) 영어로는 'Assurance'이고 국내에서는 개별 주체에 따라 '검증'과 '인증'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에서 대부분 '제3자 검증 의견서'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본 고에서는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 전규안 외(2024.2), 글로벌 ESG 인증제도 현황과 시사점, 회계저널 Vol.33 No.1, 한국회계학회, pp.90-91.

## ESG 정보 검증 의의

- ESG 정보에 대한 외부 검증은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ESG 관련 정보는 재무정보에 비하여 뒤늦게 인지되어 현재까지도 데이터 정의, 수집, 검증 방법 등이 개발 중에 있어 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한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등의 이유로 보고서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보고서 내 ESG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투자 결정 등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검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 여러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 검증을 필수 보고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ESG 정보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기도 함
  - GRI와 ISSB 같은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기관들은 지속가능성 보고 항목 중 외부 검증 의견서(혹은 제3자 검증 의견서)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ESG정보 공시와 검증이 의무화되었고, 미국 SEC에서도 기후공시와 검증을 의무화하였음<sup>3)</sup>

## 글로벌 ESG정보 검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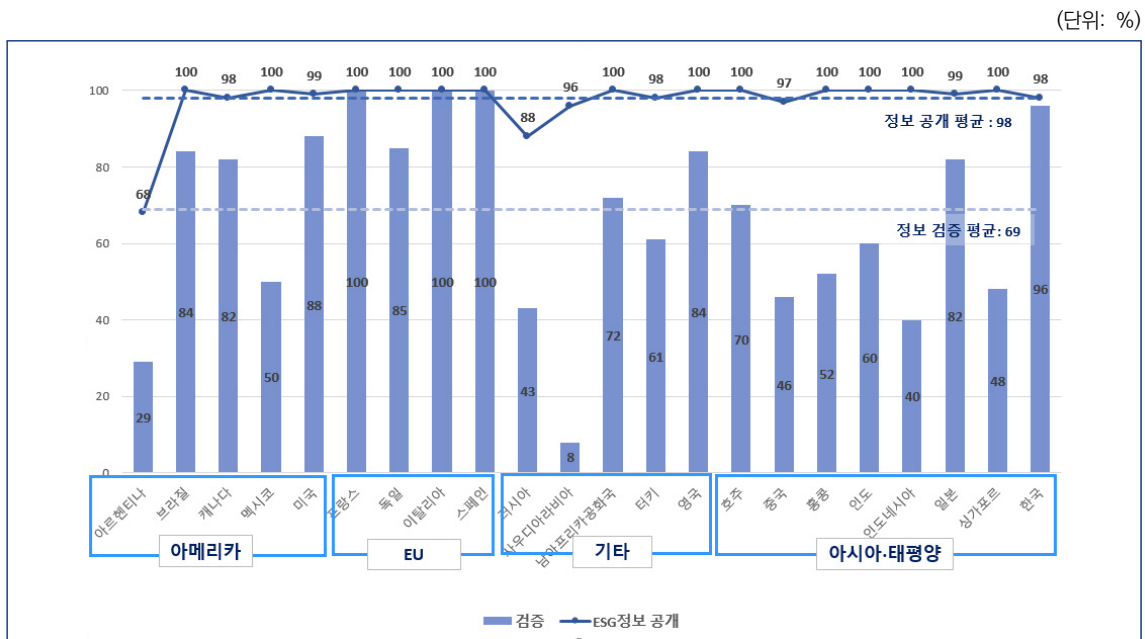
- 국제회계사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의 ESG정보 공개 비율과 정보 검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ESG정보 공개 비율은 98%, 보고 정보 중 검증 비율은 69%에 이룸
  - 2024년 2월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이하 'IFAC')이 발표한 주요국의 ESG 정보 공개와 검증(assurance)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sup>4)</sup>, 2022년 기준 22개 조사 대상 국가에서 주요 기업의 ESG 정보 공개 비율이 98%에 이룸
    - 특히 EU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와 영국 등을 포함하여 12개국에서 주요 기업의 ESG정보 공개 비율이 100%에 달함

3) KPMG(2024.4), SEC mandates climate reporting and assurance  
(<https://kpmg.com/us/en/frv/reference-library/2024/sec-climate-rule.html>, 최근접속일: 2024.8.16.)

4) IFAC(2024.2), The State of Play: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ssurance 2019-2022 Trends&Analysis. 이 조사는 이하의 22개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혹은 100개 기업의 ESG 정보 공개와 검증에 대한 조사임;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 일본, 미국의 공개 비율은 99%로 100%에 근접하며, 우리나라의 공개 비율은 98%로 평균 수준임
- 공개된 ESG정보 중 외부 검증을 받은 정보의 평균 비율은 69%로, 검증을 의무화한 EU 국가의 비율이 100%로 가장 높고, 뒤이어 우리나라(96%), 미국(88%)이 높은 검증 비율을 보임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ESG정보의 공개와 검증을 의무화하였으며 미국도 기후공시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여 높은 검증 비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혹은 사업장)만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무가 있고 그 외 ESG정보 공시와 검증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검증 비율을 보임
  - 검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8%)와 아르헨티나(29%)가 있음
- 2019년 각각 91%, 51%에 그쳤던 ESG 정보 공개 비율과 검증 비율은 조사 대상 기간 내 4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각각 98%, 69%에 이룸

〈그림 1〉 글로벌 ESG 정보 공개 및 검증 현황



자료: IFAC(2024.2), The State of Play: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ssurance 2019-2022 Trends&Analysis. 저자 재구성.

- 이상의 검증 수행 주체로 회계법인의 비율이 58%이고 검증 기준으로는 ISAE3000 사용 비율이 72%임
- 글로벌 ESG 정보 검증 기관으로는 회계법인이 58%로 감사인이 42%, 비감사인인 회계법인이 16%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유럽은 회계법인의 비율이 높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미국은 회계법인의 비율이 낮음

- 프랑스, 이탈리아는 100%, 독일은 96%, 스페인은 85%의 검증을 회계법인이 수행하는데 이 중 특히 감사인의 수행 비율이 각각 93%, 97%, 89%, 87%로 감사인의 검증 비율이 높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검증 시장에서 회계법인의 비중은 5%로 다른 국가들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뒤이어 미국(23%), 홍콩(32%), 영국(42%), 일본(43%)도 회계법인의 검증 비율이 비회계법인의 검증 비율보다 낮음
- 여러 가지 검증 기준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준은 ISAE3000로 전체 평균 72%의 활용율을 보이는데 검증기관 별 ISAE3000 활용율은 회계법인이 92%, 비회계법인이 38%로 나타남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현황<sup>5)</sup>

- 우리나라는 ESG 정보 공시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자발적인 ESG 정보 공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이하의 국내 ESG 정보 검증 현황에 대한 분석은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수행함
- 2023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총 175사로 이 중 174의 보고서가 검증을 수행하여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99.55%의 검증률을 나타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총 175사로 코스피 기업이 161사(92%), 코스닥 기업이 14사(8%)임<sup>6)</sup>
  - 175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코스닥 기업 1사를 제외한 174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외부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sup>7)</sup> 2023년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검증 비율은 약 99.5%에 이르며 앞서 제시한 국제 평균보다 높은 인증 비율을 보임

### 검증 기관

- 국내 174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부 검증을 수행한 기관은 총 20사지만 제한된 기관이 검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합계점유율이 약 10%에 그치는 등 해외 검증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 174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을 수행한 기관은 총 20사로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1개 기관의 단독

5) 이하의 국내 현황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앞서 살펴본 한국의 여러 수치들과 상이할 수 있음

6) 보고서 공시 당시 기업 구분 기준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에는 코스피 기업이었으나 2024년 중 상장폐지한 기업 2사도 공시 시 기업의 상장 시장으로 분류함

7) 코스닥 기업 1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에 제3자 검증 의견서를 수록하지 않아 제3자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점유율이 40%에 육박하고 점유율 상위 2개 기관의 합계 점유율이 약 60%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기관에 검증이 집중된 모습을 보임

- 또한 20개의 검증 기관 중 회계법인은 4사이고 합계 점유율은 약 10%에 그치는 등 회계법인의 검증 비율이 높은 해외 시장, 특히 유럽 주요 국가의 ESG 정보 검증 시장과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냄

〈표 1〉 2023년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검증 수행 기관 및 비율

(단위: 회, %)

연번	기관명	검증 수행 횟수	검증 수행 비율	검증 수행 비율
1	한국경영인증원	67	38.51	38.51
2	BSI <sup>2)</sup>	36	20.69	59.20
3	한국품질재단	12	6.90	66.10
4	한국표준협회	11	6.32	72.42
5	한국생산성본부	7	4.02	76.44
6	로이드인증원(LRQA) <sup>2)</sup>	6	3.45	79.89
7	위드회계법인 <sup>1)</sup>	6	3.45	83.34
8	삼정KPMG <sup>1)</sup>	6	3.45	86.79
9	DNV <sup>2)</sup>	3	1.72	88.51
10	신한회계법인 <sup>1)</sup>	3	1.72	90.23
11	삼일회계법인 <sup>1)</sup>	2	1.15	91.38
12	NICE평가정보	2	1.15	92.53
13	KOSRI	2	1.15	93.68
14	한칸설팅그룹	2	1.15	94.83
15	대신경제연구소	2	1.15	95.98
16	지속가능경영연구소	2	1.15	97.13
17	에코나인	2	1.15	98.28
18	컨트롤유니온 <sup>2)</sup>	1	0.57	98.85
1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	0.57	99.42
20	한국능률협회	1	0.57	100
<b>합계</b>		<b>174</b>	<b>100</b>	

자료: 저자 작성,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174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참고

주: 1) 회계법인

2) 해외 기관의 한국 지사

## 검증 기준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서 활용되는 기준은 총 5가지이며 검증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두 개 이상의 기준을 혼용하기도 함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서 활용되는 기준은 총 5가지로 AA1000AS v3, ISAE3000, KSAE3000, SRV1000, VeriSustain이 있음
  - AA1000AS v3는 영국의 민간 인증(혹은 컨설팅) 회사인 AccountAbility가 제정한 검증 기준으로 1999년 AA1000 프레임워크를 처음 제정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21년부터 AA1000AS v3이 적용됨<sup>8)</sup>
  - ISAE3000는 IAASB(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2005년 처음 제정한 후 2013년 개정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자격 조건 하에 회계법인도 활용 가능하지만 현재 주로 회계법인이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KSAE3000은 2022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ISAE3000을 개정하여 국내에 도입한 기준임<sup>9)</sup>
  - SRV1000과 VeriSustain은 각각 한국경영인증원과 DNV의 자체 검증 기준임
- 하나의 기준만을 활용한 검증은 103건(59.2%), 다수 기준을 활용한 검증은 71건(40.8%)으로 단일 기준의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적지 않은 검증이 다수의 검증 기준을 혼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기준은 AA1000AS v3으로 전체 검증의 약 88%가 AA1000AS v3를 활용하였고, 뒤이어 SRV1000, ISAE3000이 높은 활용율을 보임
- 174건의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서 AA1000AS v3을 기준으로 한 검증이 153건(87.9%)으로 5개의 검증 기준 중 가장 높은 활용율을 보이며 이중 AA1000AS v3을 단독으로 활용한 검증이 83건(47.7%), 다른 기준과 함께 활용한 검증이 70건(40.2%)임
- SRV1000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서 AA1000AS v3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준으로 한국경영인증원이 수행한 67건의 검증에서 모두 SRV1000이 활용되었으며 주로 AA1000AS v3와 혼용되었으나(65건, 37.4%) SRV1000 단독의 검증도 수행됨(2건, 1.1%)
- ISAE3000는 총 17회(11.5%), KSAE3000은 총 3회(1.7%) 사용되었으며, ISAE3000은 AA1000AS v3과 혼용되기도 했으나(3회, 1.7%), KSAE3000은 단독으로만 사용됨
  - 회계법인이 수행한 17건의 검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SAE3000 단독 활용 12회, AA1000AS v3와 ISAE3000 혼용 1회, KSAE3000 단독 활용 3회 실시함<sup>10)</sup>

8) AccountAbility(2020.8), AA1000 ASSURANCE STANDARD v3, pp.38-39.

9) 고정연(2023.5.12.), ESG 공시 제3차 검증 해외 동향 및 시사점, 2023년 제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p.7.

10) 회계법인이 수행한 1건의 검증에서 검증 의견서 상 검증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비회계법인 또한 ISAE3000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ISAE3000 단독 활용 2회, ISAE3000과 AA1000AS v3 혼용 2회 실시함

〈표 2〉 2023년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

(단위: 회, %)

AA1000AS v3	SRV1000	VeriSustain	ISAE3000	KSAE3000	합계
AA1000AS v3					83 (47.7)
AA1000AS v3	SRV1000				65 (37.4)
	SRV1000				2 (1.1)
AA1000AS v3		VeriSustain			2 (1.1)
		VeriSustain			1 (0.6)
AA1000AS v3			ISAE3000		3 (1.7)
			ISAE3000		14 (8.0)
				KSAE3000	3 (1.7)
미제시					1 <sup>1)</sup> (0.6)
<b>153 (87.9)</b>	<b>67 (38.5)</b>	<b>3 (1.7)</b>	<b>17 (11.5)</b>	<b>3 (1.7)</b>	<b>174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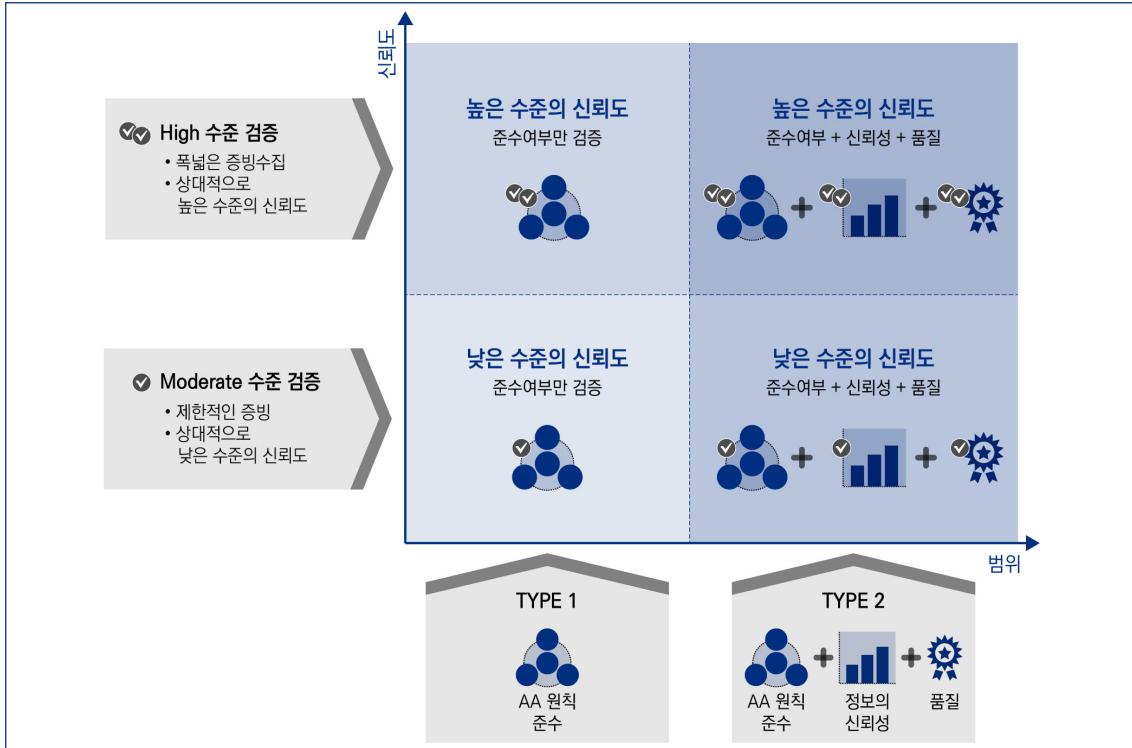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174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참고

주: 1) 회계법인이 수행한 1건의 검증의견서에서 검증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검증 유형

- AA1000AS v3은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에 따라 Type1과 Type2로 구분되는데 보고서 내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의 신뢰성만 확인하는 유형의 검증이 실시된 경우 정보 이용시 신뢰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AA1000AS v3은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검증 수행 여부에 따라 Type1과 Type2로 유형이 구분됨
  - Type1은 AA1000AP의 네 가지 원칙(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영향)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Type2는 이에 더하여 보고서 내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도 확인함
- 하나의 AA1000AS v3 검증에서 Type1 혹은 Type2의 검증이 단독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보고서 전체에 대하여 Type1 유형의 검증을 적용하고 제한된 범위의 정보에 대하여 Type2의 검증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Type2를 적용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에 담긴 ESG정보 이용 시 검증 유형이나 범위를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신뢰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AA1000AS v3 검증 유형



자료: AccountAbility(2020.8), AA1000 ASSURANCE STANDARD v3 한국어 번역본, pp.38-39

- 국내 AA1000AS v3 기준의 검증 153건 중 Type1 유형이 38건(24.8%), Type2 유형이 86건(56.2%), Type1과 Type2를 혼용한 검증이 29건(19.0%) 수행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별도 검증 결과를 수록한 경우가 약 70%에 이릅니다
- 국내의 AA1000AS v3 검증에서 Type2 유형의 검증이 절반 이상 수행되고 있으나,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Type1 유형의 검증도 약 25% 가량 수행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정보를 이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 Type1 검증을 받은 보고서의 절반 이상, Type1과 Type2 혼용 검증 보고서의 80% 이상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를 별도 수록하여 전 세계적으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하려는 모습을 보임
- 한편, 일부 정보에 한해 Type2 유형을 적용한 검증에서 4건의 보고서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를 수록하지 않았으나 이 중 2건은 Type2 검증 범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표 3〉 AA1000AS v3 - 검증유형 적용 현황

(단위: 회, %)

활용 인증 유형	보고서 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 수록	보고서 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 미수록	합계
Type1	21	17	38 (24.8)
Type2	61	25	86 (56.2)
Type1 + Type2	25	4	29 (19.0)
<b>합계</b>	<b>107 (69.9)</b>	<b>46 (30.1)</b>	<b>153 (100)</b>

자료: 저자 작성,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174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참고

## 검증 수준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수준은 모두 일반적(Moderate) 수준(AA1000AS v3)과 제한적(Limited) 수준(ISAE3000, KSAE3000)으로, 높은 수준의 검증은 실시되지 않음
- 각 검증 기준은 증거 수집 범위와 정보의 신뢰성 보장 정도에 따라 검증 수준이 구분되며 AA1000AS v3는 Moderate / High 로, ISAE3000과 KSAE3000은 Limited / Reasonable로 검증 수준이 구분됨
- 두 검증 기준에서 Moderate과 Limited, High와 Reasonable이 각각 유사한 수준의 검증으로 여겨짐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A1000AS v3 검증에서는 모두 Moderate 수준의 검증이 수행되었고, ISAE3000과 KSAE3000 검증에서는 Limited 수준의 검증이 수행되어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높은 수준의 검증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마치며

- ESG 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ESG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은 ESG정보의 관리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임
- 2023년 Bloomberg와 Adox Research가 100명의 투자자, 기후 리스크 전문가, 데이터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ESG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이 속한 거의 모든 조직이 ESG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sup>11)</sup>

11) Bloomberg(2023.8), Bloomberg Survey Reveals Increasing Demand for ESG Data but Data Management Challenges Persist (<https://www.bloomberg.com/company/press/bloomberg-survey-reveals-increasing-demand-for-esg-data-but-data-management-challenges-persist/> , 최근접속일: 2024.8.16.)

- 그러나 다수의 투자자들은 ESG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sup>12)</sup>, PwC가 300명 이상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4%는 기업이 보고하는 ESG정보는 그린워싱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함<sup>13)</sup>
  - 이는 PwC의 이전 설문에서 도출된 87% 보다 7%p 높아진 값으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전보다 더욱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부 검증은 신뢰성 있는 ESG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ESG 정보 공시 제도화 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흐름에 따른 검증 수준으로 세계적 요구에 상응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신뢰성을 갖춰야 할 것임
  - 외부 검증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실제로 위 PwC의 설문조사에서 85%의 응답자들은 보고서나 정보가 합리적 수준의 검증(Reasonable assurance, 감사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증 수준)을 받는다면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현재 국내에서 공시된 거의 모든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외부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모든 검증이 제한적 수준이라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해외 국가들은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검증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ESG 정보 공시를 제도화할 때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면서 검증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ESG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은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의 합리적 수준의 검증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sup>14)</sup>
    - CSRD는 EU 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를 제도화할 때 검증을 함께 의무화하고 검증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할 것임
    - 다만 공시 제도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낮은 수준의 검증을 오랜 기간 인정하여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12) 위의 Bloomberg 기사

13) PwC(2023.11.15.), PwC's Global Investor Survey 2023  
(<https://www.pwc.com/gx/en/issues/c-suite-insights/global-investor-survey.html>, 최근접속일: 2024.8.16.)

14) Deloitte(2023.8.17.), DeloitteESGNow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4.2.23. 업데이트,  
<https://dart.deloitte.com/USDART/pdf/072e6ee3-927b-4e5c-a4b5-c0c49a3b92cf>, 최근접속일: 2024.8.16.)

---

---

## Global News

### 1. ESMA,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서 발표

구현지\*

- 2024년 7월 24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은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regulatory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의 장기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서<sup>1)</sup>를 발표함
  - ESMA는 프레임워크가 잘 개발되어 있으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함
  - 다만 ESMA는 향후 프레임워크가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진화된 형태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레임워크의 사용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고 밝힘
  
- ESMA에서 발표한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괄
    - 프레임워크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소매 투자자(retail investors)는 전문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s)에 비해 자원, 전문성, 이해도 등이 부족하므로 프레임워크는 이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음
    -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한 투자 가치사슬<sup>2)</sup>('Sustainable Investment Value Chain', 이하 'SIVC') 전체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지원해야 함
    - 이에 따라 ESMA의 권고사항은 프레임워크에 있는 정의들을 단순화하고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U 택소노미(EU Taxonomy) 관련 권고사항
    - EU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에서 유일하고 공통된 기준점이 되어야 함
    - EU 택소노미는 사회적 기준을 포함하여 완성된 형태가 되어야 함
    - 정의의 일관성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금융 공시 규제<sup>3)</sup>('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투자의 정의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함

---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white07@cgs.or.kr

1) ESMA Opinion(Sustainable investments: Facilitating the investor journey - A holistic vision for the long term -), ESMA, 2024.07.24.

2)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 과정의 모든 단계와 이해관계자 및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함

3) 금융시장의 참여자 및 자문기관이 ESG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의미함

- 전환<sup>4)</sup>(transition) 관련 권고사항
  - 지금의 공시 규정을 보완하여, 전환 과정에 있거나 종료 단계에 있는 유해 활동(harmful activities)과 관련된 수익 및 자본지출(CapEx)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전환 투자(transition investments)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해야 함
  - 전환과 관련된 EU의 법령상 공시 규정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함
  - 신용성(credibility)과 일관성(consistency)을 보장하기 위해 전환 계획과 관련된 공시를 점검해야 함
  - 전환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에 대한 높은 품질의 기준을 개발해야 함
- 공시 투명성(transparency) 관련 권고사항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수의 간단한 지속가능성 KPI(핵심 성과 지표)로 구성된 최소 수준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개발해야 함
  - SFDR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간단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요구해야 함
  - 소매 투자자에게는 핵심적인(vital)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투자자 및 소매 투자자에게는 전체적인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상품명, 마케팅 자료, 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필 사이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함
- 상품 범주화 시스템(product categorisation system) 관련 권고사항
  - 금융상품을 나누는 범주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규제 안정성과 균형을 맞춰야 함
  - 범주에 대한 국가 감독기관('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의 감독이 필요함
- ESG 데이터 품질 관련 권고사항
  -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sup>5)</sup>('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의 실제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함
  -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친 ESG 지표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추정치(estimates)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함
  - 지속가능성 공시의 표준화 및 기계 판독성(machine-readability)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ESG 데이터 상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4) 지속가능한 경제 또는 투자로의 전환을 의미함

5)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범으로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구사항을 포함함

○ SIVC 요소 관련 권고사항

- 모든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 실사(due diligence)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함
- 금융과 비금융 부문에 대한 실사는 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 피투자 회사들(investee companies)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EU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고려해야 함

---

---

## Global News

### 2.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ISSB 공시표준에 보다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박정민\*

- 지난 7월 31일,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이하 NBIM)는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 이하 SSBJ)에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글로벌 ESG 공시표준인 IFRS S1, S2에 보다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sup>1)2)</sup>
- NBIM는 장기적인 투자결정에 있어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공개된 일본 ESG 공시 초안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의 공시표준 간 불일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ESG 공시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ISSB는 첫 번째 글로벌 ESG 공시표준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관련 공시)로 나뉨
- 한편, 올해 3월 29일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는 ISSB 공시기준을 반영한 일본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음
- SSBJ 공개 초안은 기존 IFRS S1 중 “핵심요소(core content)”를 별도의 주제별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기준으로, 이외 요구사항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th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두 파트로 분리하였으며, 'S2' 기후 관련 공시는 동일하게 별도 기준으로 수립하여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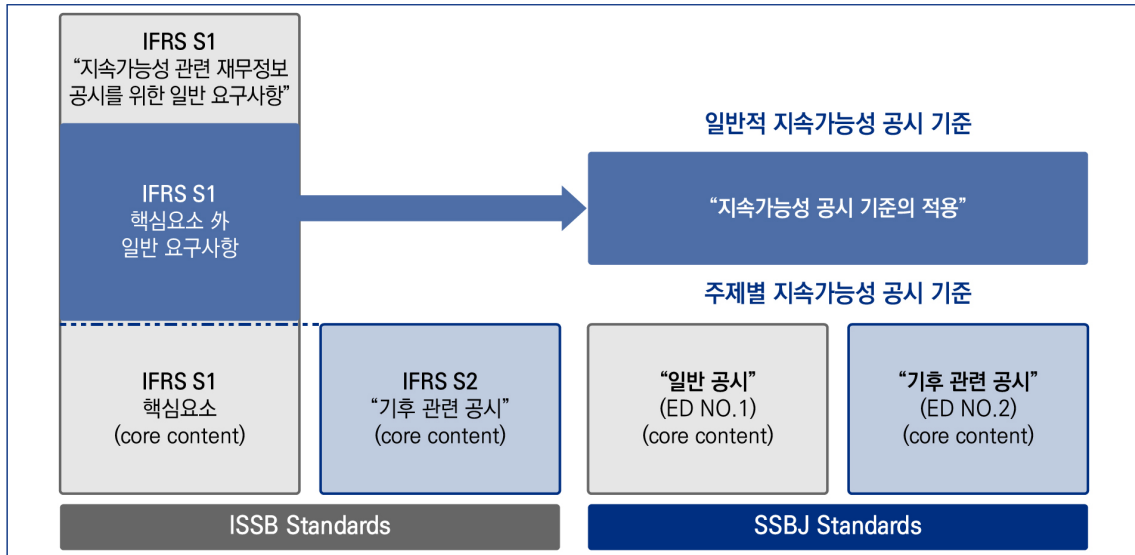
---

\* KCGS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jmpark@cgs.or.kr

1) Letter to the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 NBIM, 2024.07.31.

2)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Urges Alignment of Japan'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with Global ISSB Guidelines, ESG NEWS, 2024.08.12.

〈그림 1〉 IFRS - SSBJ 공시 초안 구성



출처: SSBJ

○ SSBJ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과 적용 대상 기업, 공시 정보의 제3자 인증 여부 등을 논의 중이며,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이후 2025년 3월말까지 ESG 공시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힘

□ NBIM이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에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 NBIM은 2023년 말 기준 215조 31억엔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 관리자로, 그 중 10조 7,930억엔(투자자산 중 약 5.02%)을 일본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 투자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ISSB 공시표준의 수정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파편화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현재 공개된 일본 ESG 공시기준 초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우려사항을 전달함

○ 공시 대상 보고 기간 관련

- (재무제표 보고기간 - 지속가능성 보고기간 불일치) IFRS 공시표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항목 공시 시에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나, SSBJ 초안의 경우 다른 보고 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관련하여, SSBJ 초안은 배출량 산정 기간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재무제표 보고기간과 재무공시 및 재무제표 보고기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정, 재계산을 요구하지 않음
- 보고 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한 보고기간을 재무제표 보고 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표 1〉 공시 대상 보고기간 관련 조항 차이

IFRS 공시 표준	일본 SSBJ 공시 초안
(S1.64)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는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기간을 포함해야 함	(Climate ED paragraph 70)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는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기간을 포함함. 다만, 적용 초안의 71항이 적용되거나, SSBJ가 발행한 주제별 기준에 특정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기업은 보고시점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Climate ED paragraph 5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일본의 온난화 대책 촉진법에 따라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의 발행이 승인된 날짜 기준으로 당국에 제출된 최신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제출함
	(Climate ED paragraph 54)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계산 기간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및 관련 재무제표) 보고 기간 간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을 공시해야함 (1) 두 항목 간 보고 기간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사실; (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계산 기간; 및 (3)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시점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및 관련 재무제표) 보고 기간의 종료시점 사이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건의 변화와 영향

출처: ISSB, SSBJ

○ 기후위험 공시 관련

- (기후 관련 전환·물리적 위험 공시) IFRS 공시표준은 기업이 기후 관련 전환·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금액)와 비중(amount and percentage)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험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 SSBJ 공시 초안의 경우, '기후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information about the magnitude of the assets or business activities)'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량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ISSB S2에 의거하여 의무화할 것을 권장함

〈표 2〉 기후 위험 관련 조항 차이

IFRS 공시 표준	일본 SSBJ 공시 초안
(S2.29(b)) 기후 관련 전환 위험(transition risks)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금액)와 비율	(Climate ED paragraph 80) (1)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금액)와 비율; 또는 (2)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에 대한 정보
(S2.29(c))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금액)와 비율	(Climate ED paragraph 81) (1)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금액)와 비율; 또는 (2)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규모에 대한 정보

출처: ISSB, SSBJ

- (내부 탄소 가격) 내부 탄소 가격 관련 공시 항목을 ISSB 기준과 일치시킬 것을 권장함

〈표 3〉 내부 탄소 가격 관련 조항 차이

IFRS 공시 표준	일본 SSBJ 공시 초안
(S2.29(f)) (6) 내부 탄소 가격 —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함	(Climate ED paragraph 84) 기업이 의사 결정에서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가) 기업이 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예: 투자 의사결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및 시나리오 분석)	(i) 기업이 탄소 가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예: 투자 결정, 이전 가격 책정(transfer pricing) 및 시나리오 분석); (ii)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탄소 가격(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가격)
(나) 기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기업이 의사 결정에서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함 (Climate ED paragraph 85) 기업 내 각 사업부에서 서로 다른 내부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내부 탄소 가격의 범위를 공시할 수 있음

출처: ISSB, SSBJ

- 올해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는 ISSB 공시표준을 반영한 한국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견조회 절차 중에 있음(의견 조회 기간: 2024.05.01.~2024.08.31.)
- 주요 글로벌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일본 자본시장의 ESG 공시 수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현재 공개된 KSSB 공개초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ISSB 공시표준과의 부합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개정 가능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